

여야, 추석 앞 대정부질문 격돌...지역화폐법 치열한 수싸움

괴담정치·김여사 특검·文수사 등 전방위 충돌 예고 野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시도...與 “합의 안돼” 반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이번주 여의도 정치권에 전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날선 공방을 펼쳤던 여야는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처리에 나설 수 있어 비정범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여야, ‘괴담정치·尹정부 실장’ 각각 정조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

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면서 거대 야당의 ‘괴담정치’와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야당이 협치를 가로막고 있으며,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근거 없는 선동 정치의 목적이 결국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다음 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첫 타자로는 연료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공세의 바통을 이어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의원단을 짰다”며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선 상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도 조목 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

◇우의장,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여부 주목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친 김에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명절 직전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는 28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를 추진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며칠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여당 일각에선 거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카드도 거론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야당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결정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은 ‘친정’인 민주당의 법안 상정 요청과 관련,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두루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文·李 “검찰 수사, 정치보복 수단되는 현실 개탄”

이재명 등 민주 지도부 文 예방 “수사 당당히...당 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 20여명은 8일 오후 2시경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1시간 정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정부가 벌이는 일이 정치·법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이)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히 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이 미완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에 공감했고 검찰의 수사가 흥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과 공감을 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민생과 정책 뿐 아니라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여달라”면서 “민주당 재집

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가짜뉴스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자들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평가했고, 둘째는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당이) 잘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진수 기자

문금주, 지역 농민회와 쌀값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일 강진군 연락사무소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규(고흥)·권용식(보성)·김동현(장흥)·윤세주(강진) 농민회장을 비롯해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최근 1만원 선까지 폭락한 쌀값 안정화 대책과 농업생산비 폭증에 따른 농약·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의원은 “쌀 수확기를 앞두고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밥상을 농민의 피눈물로 채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농민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쌀값 문제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새로운미래→‘새민주당’ 당명 변경

내일 광주서 현장 최고위원회

새로운미래가 창당 7개월 만에 당명을 ‘새미래민주당’ (약칭 새민주당)으로 변경했다. 새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명 변경 안건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논의의 기구인 책임위원

회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변경했다.

새민주당은 오는 1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2창당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전병헌 대표는 회의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전락한 현 더불어민주당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 정당으로 신속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